https://doi.org/10.31821/HEM.94.10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분열 양상 연구

박한라*

|| 차 례 ||

Ⅰ. 서론
Ⅱ. 아브젝트로 인한 분열과 과정 중인 주체
Ⅲ. 죄의식으로 인한 분열과 순수 욕망의 주체
Ⅳ.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분열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브젝트로 인한 분열과 과정 중인 주체’에서는 화자의 타자가 전복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화자의 분열이 지속되는 이유를 고찰해보았다. 윤동주 시에서 화자가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 밀어낸 것들은 아브젝트가 되어 다시 주체에게 돌아온다. 아브젝트는 혐오스럽고 매혹적인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는 전복적인 활동을 반복하면서 분열을 연장하고 주체와 객체 사이의 존재로서 구현한다. ‘죄의식으로 인한 분열과 순수 욕망의 주체’에서는 분열된 화자가 하나의 화자로 승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윤동주 시에서 화자는 사회에서 결정된 상징적 질서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순수 욕망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경험한다. 이러한 화자는 대타자에 종속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환상의 주체’로 나아감으로써 하나의 화자로 승화한다. 대타자에 종속된 주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죽음이며 대타자에 대한 종속을 거부하고 순수 욕망을 지향하는 화자는 한계 너머에 있는

*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조교수

쾌를 환상으로 만나는 것이다.

주제어 : 윤동주, 분열, 아브젝트, 코라, 분리, 향유

Ⅰ. 서론

본고는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분열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윤동주 시는 청년기의 고독감과 정신적 방황, 조국을 잃고 난 후의 민족적 아픔을 전제로 한 화자의 '분열'이 주를 이룬다. 주목해볼 점은 화자의 분열된 자아들이 서로 전복적인 활동을 이루며 '분열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분열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분열 양상을 분류해보는 것은 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작업이다.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분열에 대해 연구한 바로는 분열을 통해 소수적 정체성을 분석하거나[1] 식민지 지배체제의 동일성 지배 담론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분열을 천착한 경우[2],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와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3], 거울로서의 타자를 통해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분열[4] 등으로 대류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윤동주 시

1) 윤호경, 「분열과 탈주에 기반한 윤동주 시의 소수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8권, 한중인문학회, 2015.

2) 홍용희, 유재원, 「분열의식과 탈식민성 : 윤동주의 시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9호, 한국시학회, 2014.
장서란, 「긍정적 숭고와 탈식민주의적 정체성 연구 : 백석, 정지용,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20.

3) 이주희,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기실현의 시학」, 인제대학교 석사 논문, 2006.

의 주체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화자의 분열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화자의 분열이 반복되는 양상'과 '화자가 분열을 극복하는 양상' 간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천착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그러나 분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분류는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분열과 주체의 양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규명되어야 할 작업이다. 이에 본고는 화자의 분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는 원인과 화자의 분열이 어떻게 종식되어 하나의 화자로서 승화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윤동주 시는 한국 근대 시사에서 저항과 순수의 이원적 접근을 모두 포섭하고 있는 만큼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순수'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죄의식이 나타나지 않는 시는 저항의 차원으로 살펴보기 어려우며 죄의식의 유무와 관련 없이 윤동주 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화자의 내면을 면밀히 분석하는 방법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윤동주 시에서 타자화된 화자의 전복적인 활동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 개념을 참조하도록 한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주체를 형성하기에 부적당한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음식물이나 더러움 · 찌꺼기 · 오물에 대한 혐오감, 나를 보호하는 근육의 경련이나 구토. 그러한 것들이 나를 보호하는 까닭은, 혐오감이나 욕지기가 나로 하여금 오물이나 시궁창 같은 더러운 것들에서 멀어지게 하고 피해 가게 만들기 때문이다."[5] 이러한 현상은 주체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혐오스러운 대상을 타자화함으로

4) 강민근, 「윤동주 시의 시적 주체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논문, 2018.
5)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11, 23쪽.

써 배척하고 분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체가 되기 위해 추방되고 배제되는 타자 혹은 대상을 '아브젝트(abject)'라고 한다. 주체는 정체성 확립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정립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배제된 아브젝트가 전복됨으로써 주체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브젝트는 주체도 대상도 아닌 경계의 '무엇'이 될 수 있다. 주체를 성립하기 위해 배척한 아브젝트는 결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 끊임없이 주체를 위협하고 정체성을 교란하는 전복을 꾀한다. 아브젝트는 주체에게 혐오스러운 동시에 매혹적이라는 점에서도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 아브젝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크리스테바는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머니의 몸을 비천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배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억압된 어머니의 몸은 주체를 균열시키는 대상으로 귀환함으로써 주체의 안정성을 흔들고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러한 아브젝트의 전복적인 활동은 분열된 화자 간의 위기와 경계를 중점으로 긴강감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반복되는 분열 양상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화자가 분열을 겪는 가운데 하나의 화자로 승화되는 양상은 라캉이 언급한 '분리'로 인한 '환상의 주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분리는 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따로 떼어내는 작업이다. 이는 자신의 순수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욕망이 실재계로 향하게 만드는 여정으로 상징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를 완수하는 길이다. 이처럼 분리를 통한 주이상스는 죽음충동을 동반하여 상징계의 한계를 넘은 곳에서 환상의 주체가 향유하는 것이다. 환상의 주체는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능

동자다. “상징계로부터 기인한 불쾌를 쾌로 전환해내기 위해 라캉의 주체는 과감하게 기표에 의해 발생한 소외를 상상 속에서 봉합하고자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주이상스로 진입한 주체는 새로운 상상계적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를 라캉은 환상의 주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6] 분리를 통한 환상의 주체는 윤동주 시에 나타난 화자의 분열이 하나의 화자로서 승화되어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다.

이상의 두 이론을 참조하면서 본고는 윤동주 시의 주체가 겪는 ‘분열의 지속’과 ‘분열의 극복’ 간의 차이점와 공통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브젝트로 인한 분열과 과정 중인 주체’에서는 분열된 화자 간의 전복을 통해 화자의 주체가 정립되지 않는 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죄의식으로 인한 분열과 순수 욕망의 주체’에서는 분열된 화자 간의 대립과 그것의 극복 양상으로서의 분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아브젝트로 인한 분열과 과정 중인 주체

윤동주 시에서 화자는 분열을 겪으면서 자신이 배척한 타자화된 화자에게 매혹과 혐오를 동시에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자의 정체성은 교란되며 명확한 주체의 자리가 불가능하다. 상징계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주체가 되기 위해 이질적이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버려진 아브젝트가 끊임없이 주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남경아, 「칸트의 숭고 너머 - 라캉의 주이상스」, 『철학논총』 77, 새한철학회, 2014, 135쪽.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주체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지적한다.”7) 즉 주체를 이루기 위해 타자로 밀려난 것들이 다시 주체로 전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절대적인 주체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 시에서 타자화된 화자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도록 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 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화상」 전문

위 시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화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한 사나이”라고 칭하며 타자화할 뿐만 아니라 “그 사

7) 정혜경, 「쥘리아 크리스테바의 페미니즘 이론」, 『현상과 인식』 12권, 1988, 144쪽.

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다. 이때부터 화자는 화자가 혐오하는 자신의 이미지, 즉 "사나이"와 분열을 경험한다. 그러나 화자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지고 "도로" 그 사나이에게 가보는 것이다. 화자가 밀쳐낸 "사나이"를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다. 이때 밀쳐낸 "사나이"는 다시 화자의 주체로 전복된다. 하지만 화자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사나이"는 다시 배척된다. 그러다 화자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또 한 번 "그러워"지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가 타자화된 "사나이"를 반복적으로 배척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리스테바는 주체가 성립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 중에 부적당하고 무질서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방하고 배제하여 타자화된 것을 '아브젝트'(abject)라 일컫는다. 문제는 '아브젝트'가 완벽히 주체와 결별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주체는 아브젝트를 밀어내고 아브젝트는 주체로 전복된다. 이로 인해 아브젝트는 타자도 주체도 아닌 경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8] 따라서 이 시에서 화자의 "자화상"은 완결형이 아니다. "한 사나이"를 밀어내는 화자는 "한 사나이"를 추방하면서도 다시 끌어안는 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에 화자의 주체는 상징계의 고정된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다.

이때 "사나이"의 혐오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성질은 끊임없이 주체로부터 밀려나고 다시 주체를 끌어당기는 아브젝트의 성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상징계가 바라는 주체를 성립하기 위해 화자가 밀어낸 "사나이"는 아이가 주체가 되기 위해 밀어낸 어머니의 몸이 억압되었다가 다시 귀환하듯이 화자에게 돌아온다. 아브젝트의 전복적인 활동은

8) 줄리아크리스테바, 앞의 책, 22~23쪽 참조.

어머니와 아이의 공생, 리듬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몸은 오롯이 여자의 것도, 아이의 것도 아니다. 화자와 “사나이”와의 전복적인 활동은 “사나이”를 끌어안는 화자와 같이 주체가 타자를 품는 창조적 모성과 “사나이”를 미워하는 화자와 같이 아브젝트를 배척하는 주체 간의 반복적 순환이라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우물”은 자궁의 양수와 유사한 환경으로 주체와 타자가 공존하는 코라의 이미지가 전경화된다. 화자는 자궁과 같은 우물로부터 벗어나 주체성을 획득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처럼 윤동주 시에서 화자가 밀어낸 아브젝트로서의 “사나이”는 주체를 위기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시의 긴장를 지속시킨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나이”를 밀어내면서도 다시 끌어안다가 다시 밀어내는 화자의 모습은 끊임없이 화자가 분열되는 ‘과정’으로서 제시된다.

>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
>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
>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 「병원」 전문

화자는 “아픔을 오래 참다”가 “병원”에 와서 병명을 묻지만 “늙은 의사”는 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자에게 “병이 없다”고 진단한다. 이때 화자는 ‘병에 든 나’과 ‘병이 없는 나’로 분열된다. 화자는 병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서도 자신의 병을 자신으로부터 배제하지 않고 “내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매혹적인 “병”을 다시 끌어안는다. 병자가 아니기 위해서 “병”은 마땅히 밀어내야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화자는 “병”에 끌리듯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병”을 가진 화자는 혐오스러우면서도 매혹스러운 성질을 지닌 아브젝트로서 화자의 정체성을 위기에 빠뜨린다. 아브젝트의 전복은 화자의 주체를 경계에 머물게 한다. 즉 병이 없다고 진단 받은 화자는 ‘병에 든 자신’의 모습을 품으면서 이항대립을 무마하고 “과정 중인 주체성(subjectivity in process)”[9]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화자는 ‘병에 든 나’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로부터 배제된 “젊은 여자” 환자를 품는다. 화자는 “젊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면서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이 회복되길 바란다. 여기서 “그 여자의 건강”과 “내 건강”을 헷갈리는 화자의 행동과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눕는 화자의 모습은 ‘병든 화자’와 ‘젊은 여자’가 동일한 세계에 놓여있음을 암시한다. 병원은 사회에서 원하는 건강한 자들로부터 추방된 공간이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으며 여자 곁에 “나비 한 마리도 없다”는 언술은 “젊은 여자”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배제된 존재인지 극명하게 보여

9) 크리스 위던, 조주현 역, 『여성 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88쪽.

준다. 그럼에도 “여자”의 젊음과 “하얀 다리”와 같은 매혹적인 지점은 “젊은 여자”가 병자를 배제하는 사회의 통념에 맞서는 아브젝트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때 “젊은 여자”는 아브젝트의 의미가 사회 주권의 이방인으로까지 확장되어 적용된 결과다. 화자가 타자를 품는 창조적 모성은 화자가 “병”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포용’의 자세로 일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화자는 자신으로부터 배제된 타자에서 나아가 사회로부터 배제된 타자까지 다시 끌어안으면서 그것과 공생하기를 힘쓴다. 화자는 “병”과 “젊은 여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브젝트와의 공존을 통해 경계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주체와 타자가 공존하는 코라의 자리를 암시한다. 이로써 화자의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모성은 건강한 주체로부터 배제된 “병”에든 나를 건강한 주체가 끌어안는 모습과 사회로부터 배제된 “여자”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들을 통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위 시에서 화자는 아브젝트를 밀어내기 전의 코라 상태에서 다양한 타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타자를 품어내는 화자의 태도는 분열이 고정된 것이 아닌 ‘공존’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역동적인 분열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병”과 “젊은 여자”는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을 지녔다. 아브젝트(abject)는 부정(not)의 의미를 지닌 접두어 a가 붙어 대상(object)이 아니라는 의미다. 즉 아브젝트는 대상으로 구체화될 수 없으므로 의미를 단정을 지을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공포스러운 것이다. “병”의 정체는 “의사”도 알지 못하며 “젊은 여자”는 매혹적이고 건강한 여자의 특징과 환자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현시된다. 1연에서 “젊은 여자”의 모습은 병원 옷이 아닌 치마를 연상케 하는 “흰옷”을 입

고 있는 평범한 여자를 연상케 한다. 그럼에도 3연에서 그녀가 “병실” 안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화자가 그녀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정황을 통해 “젊은 여자”는 환자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서의 아브젝트는 상징계의 결여로서 ‘진단’이나 ‘사회 통념’과 같은 상징을 흔들 수 있는 공포스러운 것이다.

이로써 감각으로 현시되나 개념으로 정확히 정체를 재현할 수 없는 “병”과 “젊은 여자”는 모호한 대상으로서 건강한 주체나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화자는 “병”과 “젊은 여자”를 껴안는 코라의 자리를 자처한다. 그러나 화자의 주체가 정립되기 위하여 또 다시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스러운 아브젝트는 배제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동주 시에서 화자의 분열이 지속되는 원인은 화자가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 밀어낸 아브젝트가 다시 주체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즉 이는 ‘주체’와 ‘아브젝트’ 간의 분열이다. 아브젝트는 혐오스럽고 매혹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사나이”, ‘병든 화자’와 같은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는 전복적인 활동을 반복하면서 주체를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 구현한다. 화자는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끌어안음으로써 창조적 모성을 발현하기도 한다.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는 현시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등장한다. 병명을 모르는 “병”이나 젊고 매혹적이며 흰옷을 입고 있어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 환자, 더 나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나이”는 화자가 견고한 상징계의 질서와 법을 수용한 주체를 정립할 때 배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화자의 분열을 지속케 한다.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는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매혹과 혐오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일성의 세계를 사유하지 않으며 화자의 고정된 정체성을 소거한 채 ‘과정 중인 주체’로 드러난다.

Ⅲ. 죄의식으로 인한 분열과 순수 욕망의 주체

주지하다시피 윤동주 시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함, 즉 죄를 의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결정된 상징적 질서의 요구를 따를 때, 사실상 나의 죄의식을, 즉 나의 근본적 욕망을 배반했다는 죄의식을 갖는다."[10] 윤동주 시에서도 이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근본적 욕망을 배반했을 때의 죄의식이 두드러진다.

상징계의 법과 규칙은 완벽한 대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결핍이 존재하고 그 결핍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라캉은 상징계를 넘어선 "'실재'를 향한 순수 욕망을 '윤리'라 하며 정당화"[11]한다. 윤동주 시에서는 '상징계의 법과 규칙을 따르는 화자'와 '순수 욕망의 윤리를 지향하는 자아'가 분열하여 등장한다.

다음 시에서 죄의식과 분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

10) Slavoj Žižek, The Ticklish Subject :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London : Verso, 1999, 268pp.

11) 김지연, 「자크 라캉 정신분석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교원교육』 31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5, 366쪽.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으로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길」 전문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참회록」 전문

「길」에서 화자는 "돌담"을 낀 "길"을 걷는다. 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질 만큼 끝없이 펼쳐진다. 여기서 "돌담"은 상징계와 대응되는 소재로서 화자를 분열케 한다. "돌담"의 한 편에는 화자가 "남아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잃은 것을 찾는" 화자가 있다. 화자가 "잃은 것"은 상징계로 인해 무의식으로 억압된 것이다. 즉 다른 한 편에 있는 화자는 의식 층위인 상징계에 포섭된 자아인 것이다. 아버지의 질서인 상징계의 법과 규칙에 거하기 위해서 화자는 그것을 따르는 자아와 그렇지 않은 자아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돌담을 사이에 둔 양쪽의 "나"는 분신 관계다. 상징계의 법과 규칙이 강력할수록 화자의 분열은 완고해져서 분신 관계로 놓인 양쪽의 "나"는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고독한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5연에서 화자가 '부끄러움', 즉 죄의식을 자각한 후부터 "잃은 것"을 인식하고 분열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죄의식은 돌담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도 돌담 너머의 또 다른 나로 이행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잃은 것"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화자가 "이 길"을 "걷는 것은/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이는 "담 저쪽"에 타자화된 자신을 남기고 떠나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화자에게

“사는 것은, 다만/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즉 “이 길”을 걷는 화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화자다. 이때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담 저쪽”에 남겨둔 화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담 저쪽”에 담겨둔 화자를 단절하고 자신의 순수 욕망을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참회록」에서 화자는 “구리 거울”을 보며 “욕”됨을 느낀다. 거울에 비친 자아는 “욕”되다고 표현할 만큼 부끄럽고 치욕적이며 불명예스럽다. 이는 화자가 상징계의 규칙과 법에 순응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욕망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화자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낄수록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절실하게 “거울”을 “닦”는다. 이처럼 화자는 죄의식을 가질수록 ‘거울에 비친 나’에서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슬픈 사람”으로 이행한다. 죄의식은 분열의 시작이자 결국 자신의 순수 욕망을 추구하는 시발점이 된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구리 거울”을 닦아야만 보이는 “슬픈 사람”은 화자가 잃어버린 자아다. 화자는 “참회록”을 쓰고 부끄러워하는 현실의 자아로부터 벗어날 때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슬픈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징화된 현실에서 벗어나 “홀로” 바라는 길을 걸어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처럼 화자는 ‘부끄러움’이라는 죄의식을 통해 상징적 질서의 요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배반했던 자신의 순수한 욕망을 깨닫고 실천하러 나선다. 화자는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선택하여 나아가지만 기존의 자아와 끝없는 대립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돌담”이나 “운석”은 두 자아의 끝없는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자아, 즉 과거를 망각한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화자의 분열된 자아 중 기존 현실의 자아를 벗어난다는 것은 대타자의 영역에서 빠져나가는 순수한 욕망을 지향하는 주이상스의 영역으로서 화자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화

자는 죄의식을 느끼고 난 후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향한 길을 가거나(「길」),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모습(「참회록」)과 같이 이곳으로부터 저곳으로 '가는 행위'가 전경화된다. 이는 화자가 지금까지 깨닫거나 가지 못했던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윤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화자의 죄의식은 오히려 윤리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자아 해방을 꾀하는 계기가 된다. "'(상징적) 죽음'의 순간에 욕망은 충동으로 변환되는 계기를 맞이한다."[12] 즉 가는 행위로서 표현된 화자는 상징계에 종속된 자아와의 단절, 즉 상징계에 종속된 인격의 죽음을 통과한 세계로 나아가는 환상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캉에게 있어 환상의 주체란 "상징계 한계 너머로 도약하는 능동자"[13]이다. 이처럼 죄의식에 의한 분열과 분리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전환점이다.

다음 시에서는 생물학적 신체의 소멸로서의 죽음이 전경화된다.

(전략)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12) 남경아, 「칸트의 숭고 너머: 라캉의 주이상스」, 『철학논총』 77집, 새한철학회, 2014, 130쪽.
13) 위의 논문, 125쪽.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별 헤는 밤」 부분

(전략)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쉽게 씌어진 시」 부분

(전략)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다른 고향」 부분

위 시들은 죄의식을 통해 발생한 분열의 영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체의 죽음을 맞이한 화자가 새로운 존재로 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별 헤는 밤」에서 화자는 "무엇인지 그리워"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써본다. "부끄러운 이름"은 잃어버린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자"이며 화자는 그것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이때 화자는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은 화자와 부끄러운 화자로 분열된 상태다. 여기서 화자는 부끄러움, 즉 죄의식을 통해 분열을 인식한 후 상징계를 넘어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라캉은 주체가 죽음충동 이후 갖게 되는 쾌를 주이상스라는 용어로 설명"[14]한다. 불가능한 욕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충동 이후 "한계 너머에 있는 쾌를 환상으로 만나는 것뿐"[15]이다. 상징적 질서의 요구에 따른 자아와 그것으로 인해 억눌린 자아는 현실에서는 절대 화합할 수 없다. 따라서 부끄러운 화자는 죽음이라는 불쾌를 감수하고 분리되어 "자랑처럼" 무성한 풀이라는 쾌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은 "이름"이라는 대타자에 종속된 부끄러운 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자랑처럼" 무성하게 풀이 피어나는 것은 화자의 순수 욕망을 실천하는 환상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화자는 "부끄러"움을 느낀 후 "최후의 나"를 맞이한다. 이러한 죽음을 통과할 때만이 화자는 분리를 경험하고 "나"

14) 남경아, 「칸트의 숭고 너머 - 라캉의 주이상스」, 『철학논총』 77, 새한철학회, 2014, 131쪽.

15) 위의 논문, 132쪽.

가 또 다른 “나”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로 화해하는 순수 욕망을 실천한다. 죽음을 넘어선 곳에서 탄생하는 환상의 주체는 화자가 끝까지 자신의 순수 욕망을 배반하지 않으려는 윤리를 이행하기 위한 주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고향」에서는 “지조 높은 개”가 “어둠을 짓”으며 “나를 쫓”는 상황에서 화자는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한다. 여기서 “지조 높은 개”가 “나를 쫓”는 상황은 화자의 부끄러움을 전제한다. ‘지조’는 상징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죄의식을 기점으로 “백골”, 즉 죽음을 넘어서 “또 다른 고향”으로 감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순수 욕망을 추구한다.

이처럼 죄의식을 가진 화자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신체의 죽음을 넘어서 환상적 주체로 이행한다. 이러한 신체의 죽음은 그 뒤에도 살아있는 ‘환상의 주체’를 통하여 상징계에 종속된 인격의 죽음과 상호내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보여준다. 결국 상징계에 종속된 화자 밖으로 나아간 환상의 주체만이 순수 욕망을 실천하는 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순수 욕망은 과거의 삶을 차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탈출 의지로 형상화되며 화자가 맞이하는 미래로서 결코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다. 다만 화자는 언어로 지정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한 채 미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다음 시를 통해 상징계에 종속된 주체와 그것을 넘어선 환상의 주체가 중첩된 화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

「간」 전문

이 시는 『별주부전』의 '토끼'와 '프로메테우스'가 중첩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렇다면 토끼와 프로메테우스가 중첩된 주체로서의 화자는 어떠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

『별주부전』에서 토끼는 '부귀영화라는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 별주부와 함께 용궁에 간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우스에게 저항함으로써 '인간을 도와주고 싶은 순수 욕망'을 실천한다. 여기서 전자의 욕망은 사회의 체계에 예속된 욕망이며 대타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채 결핍을 환상으로 맞이하는 욕망이다. 이에 반해 후자의 욕망은 대타자의 영역에서 빠져나가는 순수 욕망이며 분리를 경험하는 주이상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별주부전』의 토끼와 프로메테우스는 '간'이

라는 소재를 통해 만나는 지점이 있다. 『별주부전』에서 용왕은 끝내 토끼의 간을 소유하지 못한다. 프로메테우스의 간 또한 독수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며 계속 소생한다. 즉 '간'은 사회 권력이 탐하거나 공격하는 것이지만 절대 사회 권력이 완벽히 소유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을 갖고 있는 토끼와 제우스는 '간'을 포기하지 않거나 '간'이 소생하는 것으로 계속 생명을 유지한다.

이 시의 화자는 "용궁의 유혹", 즉 부귀영화라는 사회의 체계에 예속된 욕망을 거부하고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로 살아간다. 화자는 "용궁의 유혹"에 빠지고 자신의 순수한 욕망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죄의식을 갖는다. 즉 화자는 토끼의 남근적 욕망을 가진 존재와 여성적 향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프로메테우스로 분열되다가 끝내 프로메테우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토끼와 프로메테우스가 중첩된 모습은 상징계에 종속된 토끼와 상징계 너머를 향유하는 프로메테우스로 분열된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순수한 욕망을 실천하는 것을 윤리로 삼은 프로메테우스로서의 화자는 사회 체계의 법을 넘어서서 '간'이 계속 소생하는 힘으로 죽음을 통과한 세계에서 "침전"하듯이 나아간다. "용궁"이나 "독수리"는 "간"을 탐할 뿐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점에서 "간"은 화자가 죽음을 통과해도 살 수 있는 근원이며 "용궁"이나 "독수리"와 같은 상징계가 끝까지 욕망하거나 지향하는 실재계의 소재다. 따라서 화자가 죽음을 향해 침전함에도 "간"은 끝까지 소생하여 환상의 주체를 이끌고 나아간다.

이처럼 윤동주 시에서 화자는 사회에서 결정된 상징적 질서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근본적 욕망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경험한다. 이러한 죄의식은 자신이 배반했던 순수 욕망을 깨닫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때 순수 욕망은 언어로 수렴되지 않는 미지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며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다. 화자는 기존의 자아와 순수 욕망을 향하는 자아로 분열되고 결국 전자의 죽음을 통해 후자는 분리됨으로써 '가다'의 성격을 지닌 서술어를 통해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에 있어 화자는 대타자에 종속된 자아와 영원히 단절하여 상징적 죽음을 맞이하거나 신체적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환상의 주체'로 이행한다. 대타자에 종속된 주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상징계에 종속된 자아로부터 벗어나 대타자 한계 너머에 있는 쾌를 환상으로 만나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승화를 통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Ⅳ. 결론

본고는 윤동주 시에 나타난 분열의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윤동주 시는 청년기의 고독감과 정신적 방황, 조국을 잃고 난 후의 민족적 아픔을 전제로 자아의 '분열'이 주를 이룬다. 주목해볼 점은 화자의 분열된 자아들이 서로 전복적인 활동을 하며 '분열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분열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윤동주 시에 나타난 분열의 양상을 분류해보는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작업이다.

'아브젝트로 인한 분열과 과정 중인 주체'에서는 화자의 타자가 전복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화자의 분열이 지속되는 이유를 고찰해보았다. 이는 '주체'와 '아브젝트' 간의 분열이다. 아브젝트는 혐오스럽고 매혹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사나이", '병든 화자'와 같은 아브젝트로서의 타자

는 전복적인 활동을 반복하면서 주체를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 구현한다. 화자는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끌어안음으로써 창조적 모성을 발현하기도 한다.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는 현시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등장한다. 병명을 모르는 "병"이나 젊고 매혹적이며 흰옷을 입고 있어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 환자, 더 나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나이"는 화자가 견고한 상징계의 질서와 법을 수용한 주체를 정립할 때 배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화자의 분열을 지속하게 한다. 아브젝트로서의 타자는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매혹과 혐오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일성의 세계를 사유하지 않으며 화자의 고정된 정체성을 소거한 채 '과정 중인 주체성'으로 드러난다.

'죄의식으로 인한 분열과 순수 욕망의 주체'에서는 분열된 주체가 환상의 주체로 승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윤동주 시에서 화자는 사회에서 결정된 상징적 질서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근본적 욕망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경험한다. 이러한 죄의식은 자신이 배반했던 순수 욕망을 깨닫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때 순수 욕망은 언어로 수렴되지 않는 미지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며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다. 화자는 기존의 자아와 순수 욕망을 향하는 자아로 분열되고 결국 전자의 죽음을 통해 후자는 분리됨으로써 '가다'의 성격을 지닌 서술어를 통해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에 있어 화자는 대타자에 종속된 자아와 영원히 단절하여 상징적 죽음을 맞이하거나 신체적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환상의 주체'로 이행한다. 대타자에 종속된 주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상징계에 종속된 자아로부터 벗어나 대타자 한계 너머에 있는 쾌를 환상으로 만나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승화를 통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윤동주 시에서는 분열된 화자가 전복적인 활동을 통해 고정된 주체를 밀어내는 유형과 죄의식을 기점으로 기존의 자아와 단절하고 환상의 주체로서 나아가는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매혹적이고 혐오스러운 아브젝트로 인해 주체의 분열이 지속되고 후자는 주체의 분리를 통해 분열이 극복됨에도 전자와 후자 둘 다 화자가 대타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윤동주 시에 나타난 '분열의 지속'과 '분열의 극복'은 고정된 의미에서 벗어나는 주체의 전위적인 양식의 확장이자 실험적인 시학의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기본도서〉

윤동주, 권영민 엮음, 『윤동주 전집』, 문학사상, 2017.

〈단행본〉

줄리아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크리스 위던, 조주현 역, 『여성 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Slavoj Žižek, The Ticklish Subject :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London : Verso, 1999.

〈논문〉

김지연, 「자크 라캉 정신분석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교원교육』 31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5, 353-379쪽.

남경아, 「칸트의 숭고 너머 - 라캉의 주이상스」, 『철학논총』 77, 새한철학회, 2014. 125-139쪽.

정혜경, 「쥘리아 크리스테바의 페미니즘 이론」, 『현상과 인식』 12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8, 135-150쪽.

윤호경, 「분열과 탈주에 기반한 윤동주 시의 소수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8권, 한중인문학회, 2015, 177-206쪽.

이주희,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기실현의 시학」, 인제대학교 석사 논문, 2006.

장서란, 「긍정적 숭고와 탈식민주의적 정체성 연구 : 백석, 정지용,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20.

최종환,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죄의식의 심리학적 연구 :윤동주, 김종삼, 마종기의 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3.

홍용희, 유재원, 「분열의식과 탈식민성 : 윤동주의 시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9호, 한국시학회, 2014, 229-250쪽.

Abstract

A Study on the Splitting Patterns of the Speaker in Yun Dong-ju's Poetry

Park, Han-ra

This paper examined the aspects of division and harmony in Yun Dong-joo's poem. The narrator, who appeared in a poem where guilt is not revealed, follows the mother's order in the pre-Oedipus stage. A narrator who is unaware of sin appears as a new subject every time in a world where division and harmony coexist. In a poem that reveals a sense of guilt, the narrator is described through a predicate with the character of 'goda' by satisfying his desire based on the sense of guilt. If you follow your desire like this, the division with the existing self is bound to be permanent. Here, when the narrator proceeds to Joo Sang-su as a pleasure that passed through death through a sense of guilt, the "fantastic subject" appears as a form in which the "divided subject" is united as the two poles. This fantastic subject can overcome the guilty consciousness,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poem in which the guilty consciousness is not revealed in that it must overcome the 'death'.

Key Words : Dongju Yoon, Guilt, Split, Cora, Separation, Jouissance

박한라
소속 :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조교수
전자우편 : hanra0912@naver.com

이 논문은 2021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